지역 소식통

고창군, 하절기 가축방역

고창군이 올 여름 장마와 혹서기를 대비해 9월 말까지를 하절기 가축방역관리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방역 활동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축사 침수 등의 수해예방을 위한 배수로 확보와 축사 주변시설 자체점검, 고온다습한 무더위 날씨에 가축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도, 환기, 사양 관리 철저 등을 농가에 적극 지도·홍보하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고창군은 지난해 9월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공동방제단 3개반을 활용해 취약지역 집중소독과 공수의를 활용해 소규모농가에 대해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을 실시한다.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전담공무원 31명을 동원해 양돈농가 일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비책도 마련했다. 가금농가 138호에 축사 출입절차와 방역교육을 시작으로 사료빈 청소와 구서·구충 기타 위생관리 등 방역설비 운영실태 를 집중 점점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부안청년 워크숍

부안군은 27~28일 2일간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에서 부안청년 워크숍을 열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열린 부안청년 정책포럼 때 부안의 청년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안만의 청년정책을 만들어 청년이 중심이 되는 청년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해 자유롭게 도출된 제안들을 갖고 부안청년 24여명이 모여 심화토론을 거쳐 최종 제안으로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워크숍에는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청년활력센터 운영에 따른 청년의견 청취와 스킬교육 등이 진행됐다.

또 최종 제안들의 방향성 설정 등 심도 있는 토론으로 부안만의 청년정책을 모색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종이 없는' 확대간부회의

고창군, '저비용·친환경·스마트행정' 첫 시도 눈길
태블릿 PC 사용, 출력으로 인한 시간·자원 낭비 줄여

고창군이 종이 없는 회의를 도입하면서 '저비용, 친환경, 스마트행정' 구축에 나섰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유기상 군수가 주재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회의자료 대신 태블릿PC가 사용됐다.

이는 종이 보고서에 익숙한 간부공무원부터 솔선해 페이퍼리스(paperless)를 실천하며 '종이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창군의 첫 시도다. 군은 이를 통해 '저비용 행정, 친환경 행정, 스마트 행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한 번의 간부회의마다 인쇄되는 자료는 약 1000여 쪽에 달한다. 인쇄와 용지, 파쇄에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는 것은 물론, 회의자료를 수정해야 할 경우 전체를 다시 인쇄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그러나 태블릿 회의는 5분이면 자료 배포가 끝나고, 내용 수정이 쉬워 회의 준비에 들었던 행정력을 절약할 수 있다. 또 공간 제약을 탈피, 어디서나 시급한 사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생생한 회의가 가능해졌다. 정보의 빠른 공유와 함께 수직적 보고체계를 탈피한 수평적 소통문화 정착에도 도움을 주게 될 전망이다.

군은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읍·면장에게까지 태블릿PC를 보급하고 각종 회의 시 불필요한 출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아날로그식 종이 보고만이 격식을 갖춘 정식 보고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며 "간부회의를 출발점으로 고창군에서 종이와 프린터, 복사기가 없이도 업무가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업무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이 27일 종이 없는 회의를 도입하면서 '저비용, 친환경, 스마트행정' 구축에 나섰다.

'정읍농업 더 큰 도약' 새 비전 제시

유진섭 시장, 열린 간담회

유진섭 시장이 최근 정읍농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열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업기술센터 이완옥 소장을 비롯해 관내 5개 농업부서 간부 공무원과 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유 시장과 농업부서 직원들은 정읍농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유 시장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생태 안전을 강조하는 공익적 농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현장의 농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농정을 구현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완옥 농기센터 소장은 공익형 직불제 개편,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 축산악취 해결 방안 등 주요 현안 등에 대한 현황을 말했다.

이어 전정기 농업정책과장은 구절초와 라벤더를 이용한 향기공화국 정읍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또, 김백환 축산과장은 축산악취 제로시티 정읍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현재 정읍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향기공화국 정읍 건설, 소외된 농업예산과 복지, 무허가 축사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유진섭 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농민과 농촌의 희생이 마땅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읍을 만들고 향기공화국 건설을 위해 농업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기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준수 당부

정읍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과태료 기준 주요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준수 당부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5일 시행으로 법제처 지침을 반영하고 농가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고장 나거나 훼손된 소독·방역 시설이 방치되어 있어도 처분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방치가 확인되면 1회부터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회차 구분 없이 상한액으로 부과된다.

시는 지역 내 축산 농가와 축산단체 등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과태료 기준 주요 내용을 공문과 우편으로 발송해 알린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 농장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틈새 없는 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정읍시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정전 위험성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축사 정전 대비·대응 요령을 제시했다.

축사 관리로 안전한 여름나기

정읍시 여름철 정전 대비·대응 요령 등 제시

정읍시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정전 위험성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축사 정전 대비·대응 요령을 제시했다.

여름철에는 전기 사용량이 폭증해 정전이나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전기합선과 누전, 갑작스러운 낙뢰로 인한 정전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

또, 올해는 폭염 일수가 지난해보다 최소 일주일 이상 늘어난 20~25일로 전망됨에 따라 축사의 전기 사용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전기시설과 배선 설비는 반드시 인증받은 규격품을 사용하고, 전기배선 덮개와 연결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또한, 정전으로 인해 물과 사료를 공급하는 자동 장치와 환기 시설이 멈추면 가축이 폐사할 수 있으므로, 경보기와 자가 발전기를 설치해 대비해야 한다.

특히, 농장주에게 실시간으로 정전 발생 상황을 알려주는 정전 경보기를 설치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무창식 축사 환기팬이 정전으로 멈추면 축사 내부 온도가 크게 오르고 유해 가스 농도가 높아져 짧은 시간에도 가축이 폐사할 수 있다.

이에 정전이 발생하면 재빠르게 대응하도록 하며 개방식 축사에서는 바람막이를 최대한 열고 바람이 잘 들어올 수 있게 장애물을 치운다.

이때 직사광선이 가축의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그늘막을 설치해 고온 스트레스에 노출된 가축은 없는지 자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읍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여름철 축사 정전은 폭염에 의한 가축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평소 전기 설비를 점검해 피해를 예방해야 하며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에 노출된 가축은 없는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부안군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최근까지 동진주조, ㈜티엘론, (유)시영, (유)지우 등 관내 기업 4곳을 방문해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군은 기업들로부터 접수한 애로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중앙부처 관련 사례는 해당 부처에 적극 건의해 처리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기업에 직접 피드백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과 군민이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각종 규제 등으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접수해 해결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www.buan.go.kr)와 지방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서도 규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